

Vol.594

2020

# 부산상의

# BCCI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www.bcci.or.kr](http://www.bcci.or.kr)

# 부산상공회의소 명지어린이집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원아 모집 안내

-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79(명지동)
- 규 모** 지상3층, 연면적 980㎡(보육실6, 놀이터2, 강당, 식당 등)
- 대 상** 서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
- 모집대상** 2021년 기준 만3세~만5세 유아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정원	15	20	27

- 입 소 일** 2021. 3. 2.(화)
- 접수기간** 2021. 1. 4.(월) ~ 2021. 1. 15.(금) 18:00 마감
- 접수방법** 입소희망자 개별접수(E-mail 혹은 FAX접수)  
※ E-mail: waney78@korcham.net, FAX: 051-990-7099
-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 선발방법** 어린이집 원아선발 규정에 의거 선발
- 입소확정** 2021. 1. 29.(금) 문자메세지를 통한 개별통지
- 유의사항** ▶ 부모부담 보육료 및 정부 지원금 외 발생 운영비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부담  
▶ 입소 희망 근로자의 소속사업주는 컨소시엄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필요

**컨소시엄 참여 및 입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051-990-7083



# CONTENTS

2020 Vol.594

## 부산상의 통권 594호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허용도 편집인 이갑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기획디자인 (주)프린테크 T. 051.301.3113~4 인쇄처 (주)프린테크 \* 부산상의에 게재되는 각종 기사는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01

### 오늘을 보다 甄

- 2 **회장님 기고**  
가덕행 비행기에 다 함께 탑승합니다
- 4 **BCCI 뉴스**  
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발표 환영 성명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  
제38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LCC 통합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가덕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경제의 미래 정책제안  
블록체인·가상자산 금융특구 위한 가이드스 기구 유치 정책제안  
부산상공회의소 서부산권 공동직장어린이집 「명지어린이집」 개원
- 15 **상의주요업무**  
2021년도 부산지역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제11기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  
2021년도 부산지역 기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서비스 사업

## 02

### 지금 읽다 讀

- 24 **경제이슈**  
수소시대를 맞이하는 동남권의 자세

## 03

### 내일을 듣다 聽

- 28 **회원뉴스**  
(주)태웅 / (주)명진TSR / 경성산업 / (주)골든블루 / 캠코  
BNK금융 부산銀·경남銀 / 르노삼성자동차  
(주)디프로메트 / 아이에스동서(주) / (주)태광  
2020년 무역의 날 및 제21회 부산수출 우수상 포상 / 선보공업(주)
- 34 **기업포커스**  
(주)영광도서

## 04

### 미래를 열다 開

- 36 **CEO 추천도서**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 38 **경제브리핑**  
2021년 1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 40 **BCCI 리포트**  
대한상의 브리프  
경영 / 노무 / 특허 / 관세  
부산상의 인포  
2021경제정책방향
- 52 **안내**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교육과정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사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안내



“  
가덕행 비행기에  
다 함께 탑승합시다  
”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울산과 경남의 경제계를 설득해온 부산경제계도 이번 만큼은 틀림없이 신공항이 건설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일부지역의 의원들은 또다시 가덕신공항을 정쟁의 테이블로 올려서 부·울·경 주민이 받을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언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절로 한숨이 나온다.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던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어찌구무없게도 지방의 발목을 이웃지방이 잡아버리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 언론은 이때다 싶어 다시 영남권 갈라놓기에 혈안이 되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짚어봐야 한다. 김해공항이 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근에 새로운 대체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왕이면 미래 활용 가치가 높고, 89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5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지역주민의 노력이 수도권의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그동안 지역경제를 견인할 가덕신공항 사업이 정치 논리에 의해 갈팡질팡하다가 이제야 정상궤도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정치 논리를 동원해 재를 뿌리는 것은 지방민의 설움을 참고 사는 주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해당 지역의 주도로 추진돼야 함이 마땅하다.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서울의 논리에 의존한 국토 개발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발생시켰다. 특히 지역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로 인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가 닥친 상황 앞에서 이를 저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단순히 지방공항 하나 건설하지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화로 왜곡된 지방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울경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세계 5위권의 부산신항이 있고 배후에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탄탄한 산업 클러스터를 갖춘 부울경에 첨단산업의 옷을 입히고, 동북아 복합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미래 비전인 것이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성공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편협한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시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 정책도 지역 스스로가 발전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부울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입지에 대한 이견 없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만큼 다른 지역의 따지는 정중히 거절한다. 그리고 지역경제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언한다.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덕행 비행기에 다 함께 탑승합시다!



허웅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국제신문 11. 27.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 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발표 환영 성명

이제는 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으로 2028년 개항 달성!

- ▶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지역균형뉴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의 산물
- ▶ 부울경 주민들 입지 대한 이견 없는 만큼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결단만 남아
- ▶ 2028년 정상개항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과 예타면제 등으로 행정절차 줄여야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17일(화),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판정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여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김해공항 확장안 고집으로 수도권에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최근 지역균형뉴딜정책에 이어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판정까지 종합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주도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색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산상의는 부·울·경 경제계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주민 모두가 가덕신공항을 지지하고 있어 과거처럼 입지에 대한 이견도 없으며, 오히려 지역균형뉴딜의 확장판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어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하는데 더없이 좋은 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의 존재로 인해 부·울·경은 부족한 첨단산업 유치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명서 말미에는 정부에 대한 요청도 담았다. 지역 내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신공항 대체입지 선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가덕신공항 확정을 조속하게 해 줄 것과 더불어 관련 지침에 의거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2028년 정상개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가덕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5곳에 전달했다.



## 국무총리실 최종 검증결과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발표에 따른 부산경제계 환영 성명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김해공항 확장안 적정성 최종검증에서 안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가 확정된 것에 대해 부산경제계는 진심어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넘는 세월동안 부·울·경 800만 주민이 관문공항 건설에 보여준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공항 시설확장 수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여 수도권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지방경제의 발전은 도외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균형뉴딜정책에 이어 이번 김해공항 확장안 부적격 판정까지 종합해보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주도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울·경 지자체와 경제계 및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주민 모두가 가덕신공항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입지에 대한 이견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울·경은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을 더욱 확장하여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행정통합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가덕신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가덕신공항이 부·울·경을 24시간 세계 주요 도시들과 연결해 준다면 부족한 첨단산업 유치는 물론이고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부·울·경 800만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부산경제계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역 내 신공항 입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신공항 대체입지 선정에 대한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가덕신공항을 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덕신공항은 명백하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침에 의거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2028년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용도 외 의원 일동

##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상의,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현안 해결 중시 모아

- ▶ 가덕신공항 2028년 정상개항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
- ▶ 경영애로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에어부산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다뤄져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20일(금) 오후 5시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경제계가 당초 21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의원 당선 축하 및 지역 주요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코로나 및 국회일정으로 개최 일정이 연기되어 이날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과 서병수, 김도읍, 김미애, 이현승, 황보승희, 안병길,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가덕신공항의 조속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서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전 가덕신공항이 정상개항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항공부품 MRO 산업단지」 조성 ▲블록체인 기반 「부산 부동산 신탁사」 신규 설립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관련 내용과 더불어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에어부산 등 지역대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건의했다.

그리고 자유 토론시간에는 참석한 상공인들이 기업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허용범위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민이 염원하던 가덕신공항 건설로 향하는 길이 총리실 최종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다시 열렸다. 이번 성과는 여당에서 끌어주고 야당에서 통큰 협치에 나서주었기 때문에 이뤄낸 값진 합작품인 만큼 가덕신공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이제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한 만큼 부산경제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과 더욱 소통하면서 부산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제38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부산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상공인 선정 및 시상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27일(금)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제38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의가 1983년부터 지역 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업 경영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는 행사이다.







특별공로부문 | (주)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

경영부문 | 스타자동차(주) 유재진 회장

기술부문 | 대륙금속(주) 박수복 회장

이번 제38회 부산산업대상은 특별공로부문, 경영부문, 기술부문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특별공로부문 (주)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 ▲경영부문 스타자동차(주) 유재진 회장 ▲기술부문 대륙금속(주) 박수복 회장이 선정됐다.

특별공로부문 수상자 (주)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은 그룹의 기업 여신 90% 이상을 일본수출 규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평소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경영에도 모범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영부문 스타자동차(주) 유재진 회장은 고객감동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기업성장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부문 대륙금속(주) 박수복 회장은 자동차 도금 전자동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친환경 도금공법 개발과 다양한 도금색상 구현 등을 통해 지역 자동차도금 업계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은 이번 시상식을 앞두고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과 경영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산상공회의소도 지역경제계 단합을 통해 부산 경제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 박성훈 경제부시장, 신상해 시의회의장, 김석준 교육감 등 지역 주요 상공인들이 참석했다.



## LCC 통합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지역 상공계, LCC 통합 대비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본격화

- ▶ 부산상의, 관계기관 및 지역 주주사 등과 LCC 통합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
- ▶ LCC 통합 시, 통합 본사 부산 유치 공동대응 방안 및 이를 위한 T/F팀 구성 협의
- ▶ 산업은행, 국토교통부에 지방 거점 통합 LCC 구축 약속 이행 촉구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9일(수), 8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시의회, 에어부산, 시민사회단체, 에어부산 지역 주주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LCC 통합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LCC통합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산상의는 회의에서 LCC 통합에 대한 추진 경과와 산업은행과 국토부의 관련 발표를 보고한 뒤, 관계 기관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LCC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통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와 에어부산 흡수 합병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상의 역시 「LCC 3사 통합 발표에 대한 부산상공계 입장과 요구」를 통해 통합 논의에 에어부산이 중심이 될 것과 통합 LCC 본사는 반드시 부산에 둘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발표하면서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통합 LCC Second Hub 구축과 통합 LCC는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새롭게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 상태다.

문제는 최근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의 인터뷰에서처럼 지방 중심의 통합 LCC 운영이라는 항공사 통합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흔들

리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에 대해 마치 항공사 발전에 걸림돌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LCC 통합 시 에어부산의 기업 가치와 위상을 보전하고 통합 LCC 본사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부산상의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늦어도 2021년 3월 중으로는 통합에 대한 큰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비해 지역 차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LCC 통합 대응 TF팀」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 회의는 LCC 통합에 대한 정책 당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에어부산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 사회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LCC 통합 대응 TF팀」 구성은 물론,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중요 지역 현안으로 다룰 계획임을 밝혔다.



# 가덕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경제의 미래 정책제안

## 가덕신공항, 남부권 공간압축 발전 및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신호탄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28일 (수),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져올 동남권 경제의 미래」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부산상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을 지적하며, 이에 비수도권 전체가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KTX 남해선 등 남부

권을 공간적으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부산은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제안으로 ▲KTX 남해선 및 부·울·경 광역 교통망 확충 ▲서부산 1백만평 항공부품·항공정비(MRO)산업 육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신산업 유치 및 혁신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이 현재와 같이 비대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역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간의 압축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남부권도 가덕신공항이라는 물류거점을 두고 영남과 호남의 동서방향 교통축에 KTX 남해선과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함께 구상한다면 남부광역경제권 통합의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덕신공항 인근 서부산지역에 1백만평 규모의 복합항공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항공부품소재, MRO, 무인기(UAV) 산업 등 연계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의 허브 기반을 구축한다면 미래성장동력의 부재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산신항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가 완성되면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아마존·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와 DHL·페덱스 등 글로벌 항공 물류사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24시간 대형화물기가 이착륙운영 가능한 공항은 지역제조업을 전 세계와 연결하여 수출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에 특화된 전자,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도 유발하여 지역산업들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가 진행했으며, 부산상의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 및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공약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블록체인·가상자산 금융특구 위한 가이드스 기구 유치 정책제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금융특구, 부산금융중심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10일 (목),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특구를 위한 가이드스 기구 유치」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해양선박금융 육성이 우선시 되어왔으나, 현실적으로 천연자원이 아닌 공산품 위주의 교역과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제한, 세계적 해운사 부재 등 필요조건들이 부족하여 해양선박금융에 특화된 중심지의 위상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경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대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한 가상자산 금융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산은 새로운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금융중심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1단계) 블록체인 금융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2단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자 가이드스 기구 설립 및 유치 ▲(3단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 정책 등 3단계의 세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 블록체인 금융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잘 알려진 핀테크와 더불어 AI를 이용해 복잡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네트워크 확대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필수적 요건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정 및 인허가 등을 가이드스 해줄 2개의 금융영업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유치와 (가칭)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다. 이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업의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문제해결 절차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시대에 금융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행 기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적 가상화폐 현물거래소 설립, 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 그리고 가상자산운용을 위한 연기금 풀 조성이다. 특히 3단계는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가 약화된 홍콩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자문사 적극 유치를 통해 부산이 새로운 플랫폼을 갖춘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 김흥배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부산상의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정부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산상공회의소 서부산권 공동직장어린이집 「명지어린이집」 개원

부산상의, 부산시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부산 산단 인력난 해소에 나서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2일(월) 강서구 명지지구 국가산단에 대지면적 1,285㎡, 연면적 980㎡, 지상 3층 규모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인, 부산상공회의소 명지녹산산단「명지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부산상의가 서부산권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로자 보육에 관한 애로 해소를 위해 인근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계 및 시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중소건설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가 맡았

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애물 없는 건축물(BF인증), 친환경자재 사용 등 스마트 공법을 활용하여 건축됐다.

동 사업은 서부산권 기업의 애로 해소가 주목적인 만큼 부산시가 어린이집 부지의 무상제공 및 설치비용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대표 항공사인 에어부산도 설치비용 1억 원을 지원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그간 서부산권 기업들이 호소해온 근로자 보육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여 인력수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할인  
**40%**

# 위험은 줄이고 혜택이 더해진— 부산시 보조금 지원개시!

## 상공회의소 안심경영 PL단체보험(제조물책임)

### PL(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가입대상

- 완제품 · 부품제조 · 공급 · 판매업체
- 수출 · 수입업체, 명의를판매업체, OEM업체
- 승강기 · 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 · 유지보수업체등

### 가입품목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자동차부품/가전/산업기계/의료기기/건축자재
  - 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섬유/잡화
  - 전기/화학제품/반도체부품
  - 식품/음료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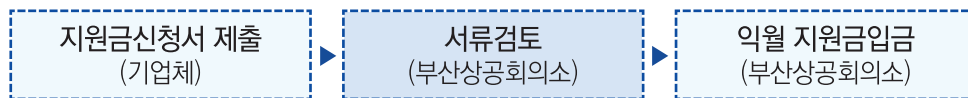
### 부산기업에게만 드리는 특별한혜택

- **단체가입 20% 할인** - 인증마크 5% 추가할인(국내한정)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부산시 보조금20% 추가환급**(최대 100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운영**(국내)
- **기업에게 유리한 가입 · 사고처리** -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 개별가입보다 훨씬싸게, 사고처리는 훨씬 유리하게!
- **대한상외와 현대해상(주간사), KB, MG, NH가함께하는** 믿을수 있는 보험
- **대한상외회원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고다 · 하나투어 · 그린카 · CGV · 시원스쿨 · 건강검진 · 예다함 · 꽃배달 · SK임직원몰 등

### 가입절차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중소기업 20% 보조금 추가환급절차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보험가입)

• 전화 : 02-6050-3875~8 • 팩스 : 070-7614-3422 • 메일 : PLcenter@korcham.net • http://PL.korcham.net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보조금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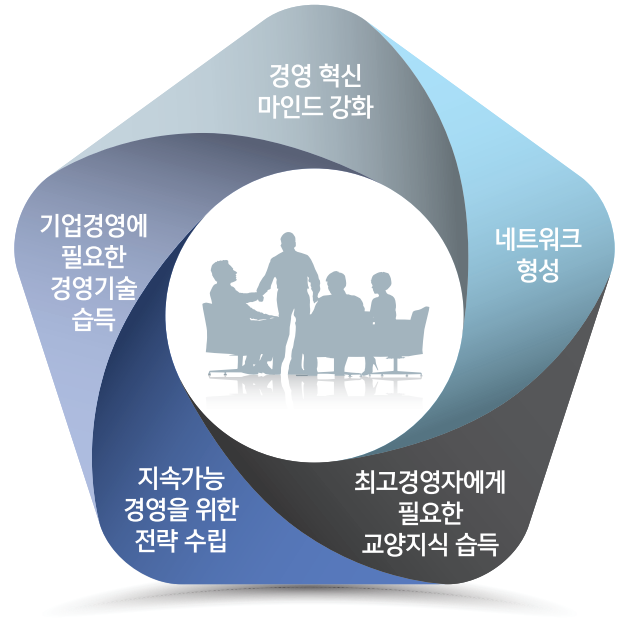
• 전화 : 051-990-7085 • 메일 : whjang@korcham.net

# 제11기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가 차별화된 내용과 시스템으로 최고경영자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 프로그램 특징

- 상공회의소 주관 글로벌 경제인 양성프로그램
- 차별화된 국내 산학관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 명망 있는 국내 명문대학의 현직 교수 및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
- 성과를 극대화하는 모듈식 프로그램
  - 마인드, 경영기술, 전략수립, 교양지식 4개 모듈별 최신강좌
  - 4개 모듈 외 네트워크 형성 모듈 시행
  - 성공 CEO, 고위정책담당관 및 지역 주요기관장 등 초청 특강 시행
- 수준 높은 인적 네트워크 제공
  - 정규과정 외 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류기회 제공
  - 지속적인 기수별 모임 관리 지원
- 지역 기업을 위한 저렴한 교육비



(연간)

과정명	수강료(VAT포함)		정원	비고
	회원	비회원		
글로벌 경제인 과정(부산상의)	275만 원	385만 원	50명	
A기관	550만 원		120명	
B기관	550만 원		120명	

### 주요 강사진

심리학	특별강연	협상	소통	경제	의료	IT, 빅데이터	IT, 빅데이터
							
김 경 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마크 테 토 TCK Investment Management 전문	류 재 언 변호사 협상연구소장	김 윤 나 The연결 대표	송 병 권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 성 근 이샘병원원장	윤 성 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정 하 웅 KAIST 물리학과 교수

# Global Businessman Leadership 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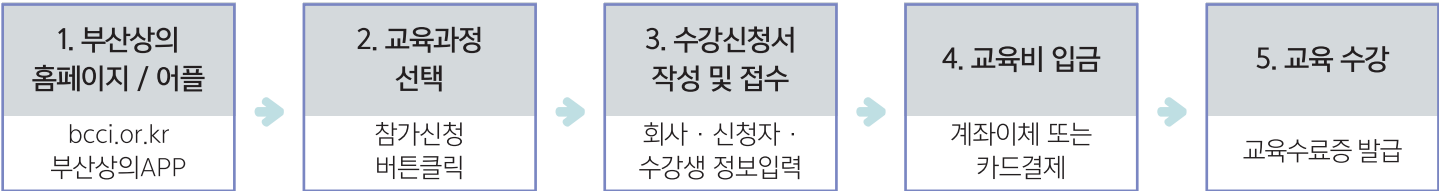
## 모집요강

모집인원	50명 내외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2021년 3월 2일~6월 29일 ※ 7~8월 방학 및 하반기 준비기간</li> <li>- 하반기: 2021년 9월 7일~11월 30일</li> <li>※ 교육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ul>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9:00부터 2시간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 CEO 및 임원</li> <li>- 기업승계를 준비 중인 2세 경영인</li> <li>-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및 전문직 종사자</li> <li>- 차세대 리더그룹</li> </ul>
교육비	<p>회원사 : 2,750,000(VAT포함) / 비회원사 : 3,850,000(VAT포함)</p> <p>※ 원우회비 및 해외연수비 별도</p>
입금계좌	<p>부산은행 031-01-030154-3 (예금주 : 부산상공회의소)</p> <p>※ 카드결제 가능 (방문 필)</p>
모집일정	<p>원서접수 : 2020. 11. 2.(월)~2021. 1. 29.(금)</p> <p>수강등록 : 2021. 2. 1.(월)~2. 5.(금)</p> <p>개강식 : 2021. 3. 2.(화)</p>
신청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바일 신청 :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li> <li>※ 주소 : <a href="http://global.bcci.or.kr/global/main.php">http://global.bcci.or.kr/global/main.php</a></li> <li>2. E-mail : waney78@korcham.net</li> <li>3. 우편송부 :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9층 통상진흥본부</li> <li>4. FAX : 051-990-7099</li> </ol>
신청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증명사진 각 1부</li> <li>※ 대표자가 아닌 경우 4대보험 납부증명서 1부</li> </ol>
문의처 및 담당자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조재완 과장 (TEL. 051-990-7083)



# 2021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실무능력 향상 교육 안내

## 교육 신청절차: 온라인 상으로만 가능



## 2021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상반기 일정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1인당 교육비 (천원, 부가세 포함)		교육일정(월별)						강사
		일수	시간	회원	일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중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 (3차)	1	4	44	88	11(월) 오전						최재운 세무사
	기초부터 핵심까지! 2020년도 신고대비 법인결산 세무조정, 신고	1	7	77	154	13(수)						김경순 세무사
	초급입문자를 위한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 (2차)	1	7	77	154	21(목)						신해수 세무사
	노동법 중심으로 풀어보는 임금관리 이론과 실습	1	4	44	88	26(화) 오전						여찬모 노무사
	법률지식이 없는 기업 담당자를 위한 효율적 거래 대금 회수 스킬	1	4	44	88	26(화) 오후						이종연 교수
2월중	국제청 세무조사 대응방안 실무 - 세목별 조사항목 준비, 행정해석 등	1	7	77	154		2(화)					오종원 회계사
	(신규개설)주 52시간제, 정부지원금 등	1	4	44	88		22(월)					김재명 노무사
	사업주/관리자를 위한 노무리스크 관리 및 노무 비용 절감 노하우	1	4	44	88		25(목) 오전					백운걸 노무사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인사노무 관리전략과 대응방안	1	4	44	88		25(목) 오후					
3월중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 소비성경비 지출증빙 관리기술	1	7	77	154			5(금)				오종원 회계사
	급여계산, 4대보험 (연금/건강/산재/고용)	1	7	77	154			12(금)				박인아 노무사
	2일 완성! 실무노동법 마스터	2	14	154	308			18(목) -19(금)				이원희 노무사
	2일 완성! 구매관리실무 마스터	2	14	154	308			25(목) -26(금)				목진환 대표

## 교육비 결제: 계좌입금/카드 중 선택 가능

구분	결제방법	제공서류
계좌입금	부산상공회의소 계좌이체	교육개최 당일 영수 세금계산서 (온라인 신청자 이메일로 발송)
카드결제	당일 현장결제 ※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 필수	카드영수증



교육 문의

통상진흥본부

TEL. 051-990-7087

E-mail. dudrb@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은행 031-01-030154-3, 회사/기관명으로 입금 필)

## 2021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상반기 일정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1인당 교육비 (천원, 부가세 포함)		교육일정(월별)						강사
		일수	시간	회원	일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월중	기초 세무실무의 이해	1	7	77	154				8(목)			최재운 세무사
	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비율분석	1	7	77	154				9(금)			
	인사노무 시리즈 1탄 (근로시간(52시간), 휴일/휴가 관리)	1	4	44	88				23(금) 오전			김민희 노무사
	인사노무 시리즈 2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1	4	44	88				23(금) 오후			
	손익분기점 분석과 제품원가 계산 실무	1	7	77	154				28(수)			
5월중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기업회계와 기업승계 3종 세트(양도, 상속, 증여세)	1	7	77	154					7(금)		오종원 회계사
	인사입문자를 위한 채용에서 퇴직까지 사례별 핵심 실무 65가지 종합과정	1	8	88	176					13(목)		박현웅 노무사
	하루 만에 총무업무 종합마스터하기	1	8	88	176					28(금)		이중연 교수
6월중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인사·노무관리 핵심 포인트 365	1	4	44	88						4(금) 오전	이승주 노무사
	Q&A로 알아보는 사례중심 징계해고 및 근로관계종료 관리실무	1	4	44	88						4(금) 오후	
	전사원이 알아야 할 감사보고서를 활용한 재무제 표 분석 실무	1	7	77	154						11(금)	오종원 회계사
	2021년 개정세법에 의한 알기 쉬운 원천징수 실무	1	4	44	88						25(금)	이석정 세무사
	202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	1	4	44	88						25(금)	

# 부산상공회의소

## 회원 서비스 사업 안내

	사업명	세부 사항	담당부서 연락처
비즈니스 정보제공	부산경제포럼 개최	회원업체 임원, 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경제/경영 정보 제공	조사연구본부 051-990-7063
	글로벌 경제인 NEXT 포럼 개최	글로벌 경제인 과정 수료자 및 부산 지역 차세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 및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보 제공	통상진흥본부 051-990-7083
	조사연구자료 제공	지역 경제, 업종 동향 및 전망 후 경영계획 수립 및 급변하는 경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조사연구본부 051-990-7066
교육/ 세미나 제공	글로벌경제인과정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내외 저명인사 및 전문가 초빙 강의로 회원사 리더의 역량 개발, 네트워킹 강화	통상진흥본부 051-990-7083
	비즈니스 실무 강좌	세무회계, 인사노무, 직무능력 등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 강좌 운영(회원사 50% 할인)	
	맞춤형 방문교육지원	법정의무, 인사조직 등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일자, 장소로 전문강사 파견지원(비용지원 및 할인이용)	통상진흥본부 051-990-7087
	상공진흥설명회·세미나	정부시책, 기업지원제도 등 정보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개최	
기업 경영 지원	경영상담센터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창업/경영, 무역/관세, 특허 등 각 분야 전문가 상담 무료 지원 (온라인 <a href="http://www.korcham.net">www.korcham.net</a> 및 전화로 즉시 상담)	대한상의 코참경영상담 1600-1572
	각종 증명발급 지원	원산지증명(C/O), 전자공인인증서, ATA까르네,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 수수료 할인	FTA지원센터 051-990-7111
	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전국 발주처 입/낙찰 실시간 정보 무상 제공, 전문콜센터 운영 및 관련 교육 실시	통상진흥본부 051-990-7083
	매출채권보험 지원	지역기업간 상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 가입시 보험료 우대·신속취급 서비스 제공	통상진흥본부 051-990-7084
	르노삼성자동차 리스·렌트 할인 혜택 제공	BNK캐피탈이 판매하는 르노삼성차, 오토리스 및 장기렌터카 서비스 우대할인을 적용 전용상품 할인제공	통상진흥본부 051-990-7083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지원	부산상의 회원기업의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 무료 제공, 캐논 복합기 5대 이상 렌탈 시 심장제세동기(AED) 무료설치 혜택 제공, 심장제세동기 단독 구입 시 30% 할인 혜택 제공	경영지원실 051-990-7044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사업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KT와 협약, 최첨단 ICT기술과 5G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	통상진흥본부 051-990-7087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서울역사 내(4층) 회의/사무시설, 지역제품 홍보관 무료 제공 운영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21: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홍보정책실 051-990-7097



	사업명	세부 사항	담당부서 연락처
글로벌 마케팅 지원	FTA지원센터 운영	포럼 개최 및 정보제공, 전문가 양성교육, 관세사 상담 지원	FTA지원센터 051-990-7016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해외시장, 통상 정보 설명회·세미나 개최	통상진흥본부 051-990-7085~6
	해외마케팅사업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기업 부스로 및 운송료 지원, 중국온라인마켓 알리바바닷컴 등록 지원	
인력 양성 및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기업에 인건비 지원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	5인 이상 지역 중소기업이 신규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턴지원금 지급	일자리사업본부 051-990-7012
	부산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생태계 개선사업	주력산업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 및 미니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취업 알선 퇴직자 재취업 특강 개최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운영	고용위기업종(조선·해양·자동차부품) 퇴직자 취업지원 및 구인기업 인력매칭 지원	
	일자리박람회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일자리 박람회 공동 개최	
	종합직무능력검사 (K-TEST) 시행	채용 시 활용 가능한 인성, 직무능력, 직무지식 검사 시행	자격평가사업팀 051-990-7123
회원사 홍보 지원	상의 출입기자단 운영	상의 및 지역기업의 언론 홍보 지원	
	부산상의 모바일앱 운영	부산상의 각종 행사/교육, 상의동정, 조사연구자료 등을 맞춤형 제공 '부산상의톡' 앱 운영 (구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부산상의톡' 검색 후 설치)	홍보정책실 051-990-7095
	분기별 「부산상의」지 발간	부산상의 · 회원기업 소식 경영 · 경제정보 제공 소식지	
	챔버스퀘어 운영	경제홍보관에서 지역 경제 역사와 향토기업의 홍보	
복지 증진 및 사기 양양	부산산업대상 시상	부산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 및 포상으로 지역 기업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통상진흥본부 051-990-7084
	회원사 기념행사 포상사업	회원기업의 기념행사시 모범임직원 표창 및 부상품 제공	
	의료지원 서비스	지역주요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 보호 (종합검진, 비보험진료비 10~15% 감면) · 참여병원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동병원, 동아대의료원, 동의대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삼세한방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등 8개 병원	회원지원본부 051-990-7036
기타	상의회관 회의실 임대 할인 혜택	회의실 임대료 당연회원 50%, 임의회원 20% 할인	경영지원실 051-990-7044
	상의수첩 제공	회원기업대상 상의 수첩 배부	회원지원본부 051-990-7037
	전국상의 회원 특화 제휴 서비스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소개 → 회원서비스 → 회원특화제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각 제휴업체별 담당자 문의

## 2021년도 부산지역 기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무료)

공동훈련센터명	훈련대상	훈련분야	훈련과정명	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인원
<b>대한상공회의소</b> <b>부산인력개발원</b>  문의 T. 051)610-3124~7	채용예정자	기계	3D CAD 디지털목업 활용 컴퓨터응용설계제작	163	1,200	25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실무	191	1,400	25
			차세대 이동수단 드론 시제품설계제작	191	1,400	25
			스마트제조 융합 IoT실무	98	720	25
	재직자	인쇄·목재·가구·공예	부엌가구인테리어시공	44	280	2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소형무인기를 활용한 시설물 점검	2	16
		운전·운송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3D 맵핑]	2	16	15
			기계	3D DATA 구축을 위한 ICADPLUS 과정	3	20
		AutoCAD[2D]를 활용한 기계부품설계실무		2	16	15
		Inventor를 활용한 기계요소설계[3D]		2	16	15
		SolidEdge 3D부품 설계실무		3	20	24
		설계자를 위한 구조해석 및 열해석		2	16	12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PLC(MELSEC) 제어 실무		2	16	15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PLC(SIEMENS) 제어 실무		2	16	15
		품질 데이터 분석 실무자과정		2	16	20
		ISO품질 내부감사원 적합성 평가실무		2	16	40
		AM을 활용한 라이버러리 구축 실무(유급)		5	40	40
		AVEVA Design을 활용한 개조(역설계) 실무(유급)		5	40	40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1		8	20	
	재료	설비보전을 위한 용접	1	8	10	
정보통신		4차산업혁명의 비즈니스시스템 구축	1	8	20	
	환경·에너지·안전	파이썬 [Python]활용 업무 자동화	2	16	15	
경영·회계·사무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1	8	15	
	생산 데이터 관리(엑셀)·중장년 ICT	2	16	40		
<b>부경대학교</b>  문의 T. 051)629-5221, 5231~3	채용예정자	정보통신	윈도우 플랫폼기반 IoT시스템 개발자	150	1,200	25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바 개발자	150	1,200	25
	재직자	건설	건축물 전문관리자 실무	1	8	100
			건축물 관리법령 실무	1	8	100
			설비 도면해독법 실무	1	8	40
			조경시공 및 관리 실무	1	8	100
			제조리드타임 개선 실무	1	8	25
		정보통신	스프링 프레임워크 실무	3	24	15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실무	3	24	15
		경영·회계·사무	스프레드시트 활용 실무 초급·중장년ICT	1	8	20
스프레드시트 활용 실무 중급·중장년ICT	1		8	20		
<b>(재)부산디자인진흥원</b>  문의 T. 051)790-1082~7	채용예정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프론트엔드 웹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80	480	15
	재직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자인 국책 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제안서 만들기	1	8	20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스킬향상	1	8	60
			디자인소스 개발을 위한 캘리그래피	5	15	20
			디자인 표현기법 확장을 위한 펜 일러스트	5	15	20
			디자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화 페인팅 기법	5	15	20
			패키지디자인개발 실무	4	12	20
			빅데이터분석과 시각화	1	8	40
			디자인 구현을 위한 가죽 소재 활용	4	12	20
			3D 프린터 활용실무	5	15	20
			SNS에 최적화된 카드뉴스 제작 노하우	1	8	20
			아이디어 시각화를 위한 디지털드로잉	4	12	20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1	8	60
			고퀄리티 영상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활용법	5	15	20
			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한 모션그래픽	5	15	20

※ 훈련과정 등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usanhrd.or.kr/>) 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교육훈련」 참고

공동훈련센터명	훈련대상	훈련분야	훈련과정명	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인원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문의 T. 051)790-1082~7	재직자	인쇄·목재·가구공예	레이아웃 활용 스킬업 핵심실무	5	15	20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그래픽 제작	5	15	20
			이미지 및 디지털 매체 편집을 위한 포토샵 활용법	4	12	20
		경영·회계·사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파워포인트 활용_중장년CT	1	8	40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문의 T. 051)330-7751~4	재직자	건설	(공동주택) 방수 개론	1	8	40
		기계	NX(UG) 3D Modeling	1	8	20
			CNC선반 프로그램 작성 및 확인	1	8	10
			CNC선반 장비 조작 및 운용실습	1	8	10
			CNC밀링(머시닝센터)프로그램 작성 및 확인	1	8	10
			CNC밀링(머시닝센터)장비 조작 및 운용실습	1	8	10
			CATA(CAM) 프로그램 작성 및 확인하기	1	8	10
			CATA(CAM) 프로그램 검증하기	1	8	10
			기계정비(공압제어)	1	8	20
			기계정비(유압제어)	1	8	20
			(MELSEC) PLC과정	2	16	10
			(XG) PLC과정	1	8	10
			스마트팩토리 실무	1	8	30
			그린카 정비 실무	1	8	20
			전기자동차 정비 실무	1	8	10
		항공기 기체치공구 설계 및 제작(유급)	5	40	20	
		Inventor를 활용한 3D CAD 기초	1	8	30	
		Inventor를 활용한 3D CAD 심화	1	8	30	
		전기전자	수변전설비(공동주택) 일반	1	8	20
			수변전설비(공동주택) 심화	1	8	20
			(공동주택) 전기재해 예방	1	8	40
			항공기 자동제어시스템 유지정비 향상과정(유급)	5	40	20
		영업판매	(공동주택) 장기수선 전산 실무 향상과정_중장년CT	1	8	60
한국해양대학교 문의 T. 051)410-4488, 4496, 5240, 5257	재직자	경영·회계·사무	사내표준화(QM,QC)관리 실무	1	8	30
			품질경영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축실무	1	8	20
		운전·운송	선박보조기계실무	1	8	40
			선박평형수 관리교육	2	16	40
			고전압 운용교육	1	8	15
			고전압 직무교육	3	22	30
			선박 역량강화 스킬업	1	8	40
		영업판매	제안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실무	2	15	40
		기계	스마트 공장 엔지니어링 문제해결	1	8	20
			설계도면분석을 통한 부품모델링	2	16	15
			IoT융합 스마트 팩토리 구축	1	8	40
		전기전자	스마트 자동화제어시스템 실무	1	8	15
			3D프린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모델링	1	8	15
		정보통신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전환	3	24	20
		환경·에너지·안전	조선해양기자재 진동규격 및 측정평가	2	16	30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실무	2	16	20
			Ex Awareness(방폭)	1	8	40
		경영·회계·사무	응용프로그램 활용 향상_중장년CT	1	8	40

※ 채용예정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실업자),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 대상 훈련임



# 수소시대를 맞이하는 동남권의 자세

ATTITUDE TO MEET  
THE HYDROGEN AGE





온실가스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 \_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제명 (수소선박기술센터 센터장)



최근 5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와 그 전 5년간 기록된 농도를 비교해 보면 20% 증가를 보인다. 이처럼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노력이 아닌, 범세계적 대책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신규발전 설비 투자 비중에서 재생에너지는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소속 유럽 국가들은 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10%까지 늘렸다. 2018년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탈탄소화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미래 청정에너지로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사실 에너지 전환과정의 에너지 전달 매체로서 전선이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기 및 열을 대규모로 저장하고 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궁극적으로 수소는 연소 시 극소량의 질소가 생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직접 연소를 위한 연료나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이 간편하다. 또한, 화석연료와 달리 생산이 유연하며 지속적 확보가 가능하므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는 현재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4%를 수소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820억 유로의 부가가치 창출과 540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국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가능하다. 스코틀랜드 오크니섬(Orkney Islands)이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역의 에너지 수요 전량을 석탄이나 가스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로 충당하던 오크니섬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이 없이도 지역 자체적으로 잉여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을 구축해서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수소를 통해 지역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섬을 오고 가는 선박은 수소연료전지로 운항한다. 오크니섬 뿐 만아니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에너지 시계의 초점은 이미 수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로 대규모 전력과 물류의 수송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과 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경상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이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인지, 2019년 중앙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동남권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기반 구축용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수소가 액체상태가 되면 기체상태보다 800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 운송과 저장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해지므로, 액체수소의 활용은 수소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동남권의 상업용 액체수소 생산량은 2022년부터 하루 40톤 수준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수소자동차 1만대가 하루에 사용하는 수소는 5톤 이하라고 한다. 액체수소 4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은, 풍족한 에너지 사용처를 찾아야 하는 행복한 고민도 되겠지만, 인구 800만에 이르는 동남권 경제규모를 보면 결코 과도한 양은 아니다. 따라서 동남권은, 효과적인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액체수소 공급용 인프라를 권역내 모든 지역에 설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용량 액체수소 저장 및 공급 거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 고압수소 공급설비를 이용해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인 액체수소의 낭비를 막는 방향으로 공급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인프라 구축 위치선정은, 액체수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들의 집적지에 대규모 액체수소 공급 거점부터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액체수소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대형 수송기기들이다. 액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고압수소 대비 최대 10배 가량 저장이 가능해지므로 선박이나 버스, 화물차 등 장거리 운송 기기의 연료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액체수소연료탱크를 장착한 장거리 운송 차량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액체수소가 가지는 저장효율 측면의 장점은, 세차장 크기의 액체수소 기반 수소충전소로도 충분한 수소공급이 가능하다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버스와 화물차는 일정한 곳을 운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버스 차고지에 액체수소 기반 수소공급 스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선박의 경우는 항만에 선박용 액체수소 벙커링 스테이션 형태로 구축될 수 있으며, 현재 액체수소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 합의안을 도출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친환경 연료로서의 수소사용 특히 액체수소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역시 친환경-탈탄소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많은 양의 수소를 사용하는 곳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연간 수소 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소전용항만을 조성해서, 국내 사용 수소 전체 사용량의 57%를 담당하는 수소공급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탄소제로' 수소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수소전용항만 설계를 마치고 시설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수소의 대량 수압-생산-저장 및 공급망 구축, 해양 재생에너지바이오 기반 수소생산 및 활용, 원격지 수소 생산 및 저장





| 그림 | 수소에너지 기반 항만-연안-해양-도시 연결 탄소제로 해양공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수소경제기술 활성화 방안연구, 2019.12.)

안전기준 마련, 시(인공지능) 기반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수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유통하는 수소전용항만을 개발하고, 수소연료 선박의 운항과 연료공급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위 그림은 탄소제로 수소항만의 개념이다.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공급, 활용 모든 분야를 다루는 에너지 전주기 차원에서 볼 때, 수소는 아직 완전한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결국 탈탄소시대를 지탱하는 수소시대가 올 수 밖에 없다. 에너지로서 수소는 현재의 정제유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될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결국 가장 친근한 에너지로 수소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의 전환은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동남권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소경제는 동남권에 있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숙명이며 또 다른 형태의 기회이다. 산업계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수소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준비된 수소시대는 장기 저성장 기조의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오는 훈풍이 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수소시대는 겪어 보지 못한 태풍이 된다.

에너지의 전환은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동남권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소경제는 동남권에 있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숙명이며 또 다른 형태의 기회이다.

ATTITUDE TO MEET  
THE HYDROGEN AGE



### (주)태웅

#### ‘녹색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주)태웅은 지난 11월 25일(수)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녹색경영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녹색경영과 녹색시장에서의 부가가치창출을 통한 친환경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주)태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그린에너지 산업인 풍력발전산업에 진출해 조선기자재 공급업체에서 현재 세계 핵심 풍력부품 시장의 시장점유율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2016년부터는 청정 제공공장을 신설·운영해 오고 있으며, 총 사업비 5천억 중 20% 이상을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물 개선과 사업장 분진배출 저감 및 대기배출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주)명진TSR

#### 조용국 회장 부산상의 의원 퇴임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27일(금) 2층 중회의실에서 (주)명진TSR 조용국 회장의 「부산상의 의원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그동안의 공로와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한 공로패를 전달하고, 상의의 원칙은 명진TSR 대표인 조시영 대표에게 승계했다.

조용국 회장은 1991년 14대 부산상의 의원에 당선된 후 29년동안 의원 및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삼성자동차 부산유치, 녹산산단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 경성산업

#### 김경조 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성산업 김경조 회장은 지난 12월 11일(금) 서울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제4회 여성경제인의날』 기념식에서 여성기업인 유공자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경조 회장은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 (사)그린트러스트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 (주)골든블루

### 연말 맞아 나눔 활동 실천



(주)골든블루는 지난 12월 3일(목),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언택트 송년회를 개최했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기부금 전달식을 따로 마련했다.

(주)골든블루 부산 본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주)골든블루 김동욱 대표, 최용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장애우시설인 한마음학원과 부산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남광아동복지원 관계자를 초청해 사랑과 희망을 담은 기부금을 각각 500만원씩 후원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마음학원과 남광아동복지원에 있는 원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 생활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주)골든블루는 작년 연말에도 남광아동복지원의 아동들을 송년회에 직접 초대해 500만원의 기부금을 나누며, 원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전한 바 있다.

(주)골든블루는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Growing & Building for Tomorrow'라는 사회공헌활동 슬로건 아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캠코

### 기업 규제애로 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캠코는 지난 12월 1일(화) 부산국제금융센터(BFC) 47층 대회의실에서 권남주 캠코 부사장과 지역본부장 10명이 온라인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용상담 창구이다.

캠코는 부산 본사와 전국 10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인원 보호·서비스현장'을 제정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업규제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입증책임제(공공기관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없애는 제도) 등 정책 실천의지를 담아 '자산은 키우미, 규제는 줄이미'를 규제혁신 브랜드로 제정하고,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6명)'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혁신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 BNK금융 부산銀·경남銀

### ‘스마트앱어워드 2020’ 최우수상 수상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스마트앱어워드 2020’에서 은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스마트앱어워드’는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앱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을 통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총 25종의 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와 앱의 새로운 서비스를 푸쉬 메시지로 안내하는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 등으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또한 부산은행은 거리에 구애 없이 전국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노인 지원센터 등에 실시간 라이브(Live) 영상 금융교육이 가능한 ‘BNK금융 클래스’ 앱으로 금융부문 금융연계서비스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모바일뱅킹 전면 개편 시 고객 의견과 사용 패턴 등을 적극 반영한 ▲최신 보안기술 구현 ▲고객 중심 사용성 개선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풀(Full)뱅킹서비스 등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르노삼성자동차

### 부산 사회복지기관에 10억원 상당 전기차 등 113대 기부 기념식 진행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2월 3일(목)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에서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0억원 상당의 전기차와 상용차 총 113대를 부산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차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기증식에는 르노삼성자동차 도미니 시노라 사장과 박종규 노조위원장을 비롯, 홍정기 환경부 차관,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정부 기관 및 부산 사회복지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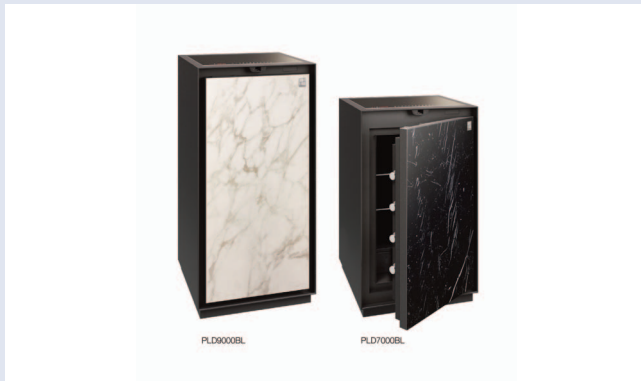
이번에 기부되는 르노 트위지 100대, SM3 ZE, 10대, 르노 마스터 3대는 부산 내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동물복지 등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70곳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경제기관 등으로 전달돼 활용될 예정이다.

10억원 상당의 차량 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길어지면서 사회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책임까지 고려한 사회복지와 환경이 접목된 친환경차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와 환경부, 부산시가 뜻을 모아 성사됐다.



## (주)디프로매트

프리미엄금고 팔라디움(PALLADIUM),  
2020 굿디자인(GD) 마크 획득



(주)디프로매트의 프리미엄금고 '팔라디움(Palladium)'이 2020년 굿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 상품에 수여하는 디자인 상이다. 외관은 물론 사용된 재료를 포함해서 기능성과 경제성 등 모든 면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한 제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2020 굿디자인(GD) 제품으로 선정된 프리미엄금고 '팔라디움'은 단순미와 절제미가 돋보이는 현대적 감각의 외관 디자인에 다양한 소재의 도어 패널을 적용하여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다. 대리석, 목재, 메탈 패널을 이용하여 고급가구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계 최초로 이중 전자식 잠금시스템을 적용하여 메인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조시스템으로 금고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bi, 재잠금장치(Relocking Device), 앤티-드릴(Anti-drill) 보강판 등 금고의 보안기능을 강화했다.

## 아이에스동서(주)

권혁운 회장 부산시에 3억 원 쾌척



아이에스동서(주)는 지난 12월 3일(목) 오전 11시 20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최소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아이에스동서는 2015년부터 부산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 불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권혁운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마저 위축될까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한번 더 둘러보는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된다.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시작된 올 초에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옹호동 더블유스퀘어 상가의 3개월 임대료 50%(약 5억 5천만원 상당)를 감면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행해 지역경제 상생을 선도한 바 있으며, 부산시에 KF94 마스크, 부산 전통시장에는 방역 및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태광

매천장학재단, 83명에게 1억 1,951만원 장학금 전달



(주)태광은 지난 12월 24일(목) 본사 소회의실에서 「제18회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매천장학재단은 2020년 부산지역의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24명 및 대학생 22명 총 83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1억 1,951만원을 지급했다.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윤성덕 이사장은 “전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2년 100억 규모의 자산으로 설립한 매천장학재단(이사장 윤성덕)은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현재까지 1,511명의 지역 우수 장학생들에게 20억 2,9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태광은 산업용 금속관이음쇠(fitting)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피팅제조 세계위 기업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에도 등재된 부산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2020년 무역의 날 및 제21회 부산수출 우수상 포상 부산상의 회원사

업체명	수상자	포상명
(주)파나시아	이수대 대표이사	3억불 수출탑
효성전기(주)	정진근 대표이사	1억불 수출탑
(주)딘텍	김규식 대표이사	1억불 수출탑
세화씨푸드(주)	배기일 대표이사	1천만불 수출탑
(주)화신볼트산업	정순원 대표이사	1천만불 수출탑 제21회 부산수출우수상
디케이모터스(주)	노기식 대표이사	1천만불 수출탑
(주)오리엔탈검사개발	박세철 대표이사	1천만불 수출탑
(주)한국유화	신구봉 대표이사	1천만불 수출탑
(주)현대피팅	하맹성 대표이사	7백만불 수출탑
한선엔지니어링(주)	이제훈 대표이사	7백만불 수출탑
(주)성일엔케어	우타관 대표이사	5백만불 수출탑
유신에이치알(주)	허순정 대표이사	1백만불 수출탑

## 선보공업(주)

### 선보Family가 함께하는 따뜻한 부산만들기 연탄 나눔행사



선보공업(주)은 지난 12월 5일(토) 지역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연탄 나눔' 후원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선보Family의 따뜻한 부산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영세가장 외 조손 가정에 연탄 1만 장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였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감천2동에 집결한 선보Family 임직원과 가족 80여 명은 20가구에 각 100장씩 총 2,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를 하였다. 지게 적재조 10명, 지게조 50명, 가정 적재조 20명 등으로 효율적으로 나누어 일사천리로 배달 봉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배달 완료한 연탄 2,000장은 각 가구가 약 한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나머지 8,000장에 대해서는 12월~1월 중 사하 지역에 순차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2012년부터 매년 이어온 선보공업(주)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특히 이번 봉사를 희망한 임직원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맘 흘리는 흐뭇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선보Family는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에너지배려세대를 직접 찾아가 연탄을 전달할 수 있어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필요한 계절, 나눔의 훈훈함이 더욱 따뜻하게 전달되었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이날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선보Family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 지식 문화 휴식처이자 지식의 보고, 영광도서

글. 부산대학교 백서운 학생기자



‘독자가 찾는 책이 없다면 서점이 아니다.’  
라는 책에 대한 도전정신은  
지금의 영광도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 부산시민의 문화사랑방, 향토서점 영광도서

1968년 영광서림으로 출발해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한 영광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에 위치한 지역 대표 향토 서점이다. 2019년도 기준 전체 43만여종, 110만권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서적부터 다양한 책을 상시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다량의 종교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책이든 다 있는 서점’으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고 있다.

국내 대형서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광도서는 서비스업으로 독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초기 당시, 고객이 원하던 책은 전국에 수소문해서라도 반드시 구해 전해주었다. 그것은 고객의 믿음이라는 무형 자산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영광도서에 가면 어떤 책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서점 규모도 나날이 커져갔다.

2002년 서울 종로 서적의 폐업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냉각된 독서 열기에 수도 권과 부산의 유서 깊은 토종 대형서점들도 잇따라 폐업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의 재벌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전성시대를 맞이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서점 수는 1997년 5400개 대비 약 1/3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구조적인 서점의 약세 추세 속에서도 영광도서는 부산시민의 문화사랑방 역할과 책 읽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일을 시민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오랜 역사를 계속 지켜가고 있다.

## 추억의 영광도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꾼다.

1968년의 한 평 반짜리 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영광도서는 올해 52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4일, 기존 4층 건물을 헐고 같은 장소에 지상 17층, 지하 3층의 건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하 3층부터 1층까지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8, 9층에는 영광도서 문화 홀, 리 갤러리, 영광문화예술원, 하늘 정원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공연장에는 25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고광량 레이저 프로젝트(EB-L1505UH)로 영화관 수준의 영상 시설을 갖추었으며, 그랜드 피아노, 앰프 등 연주 시설도 준비되어있다. 또한, 리 갤러리에는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바닥과 조명에 정성을 쏟았다. 각종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도 준비되어있으며 <부산의 책, 부산출판사 ‘부산! 아는 만큼 보인다.>, <영광도서 직원 및 독자가 추천하는 책>, <마음을 쉬게 해줄 여행> 등 독자들에게 딱 맞는 테마 별 전시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책을 파는 서점을 뛰어넘어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샘으로, 누군가에게는 문화공간으로,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반세기가 넘게 터를 지키고 있다. 부산의 중심인 서면에 등대처럼 우뚝 서서 지식의 빛을 발하는 영광도서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책은 자신의 멘토요, 서점은 멘토를 만나는 광장이다.” 라는 김윤환 대표이사의 독서 철학이 크게 작용했다.

### 부산의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 지킴이’ 영광도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베스트 셀러의 작가와 문학평론가가 ‘강연’이 아닌 ‘토론’의 형식으로 독자를 만나는 ‘영광독서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문열, 신경숙, 김훈 같은 우리나라 대표 작가 대부분이 참여했는데, 초기에는 독자와 책 한 권을 놓고 마주 앉아 두시간 넘도록 진지한 토론을 한다는 형식을 달가워하지 않아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167회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부산시가 ‘직할시 승격 50년’을 앞둔 당시 ‘부산의 보물을 찾아라, 부산 기네스 시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위에 올라 부산 문화에 기여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어, 일본어 강좌 등 10여개의 무료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또한, 무료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왕 선발대회, 영광독서감상문 현상 공모전, 독서 정보지 무료 배포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영광도서는 부산 독서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신념으로 부산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사회 교육적 기능을 살린 서점으로 앞장서고 있다.

### 부지런한 독서운동가 김윤환 대표, 책과 함께라서 더욱 빛나는 인생

김윤환 대표는 책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52년이 되었다. 반세기 동안 책과 함께 살아가며 그는 책과 독자를 만나게 하는 서점 경영인이자 좋은 책을 소개하고 선물하는 독서 애호가이기도 하며 권장하는 책을 여러 권 펴낸 저자이기도 하다.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시절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일생을 살며, 그의 방식으로 부산에 헌신했다. 그는 신간도서 중심으로 서점 경영을 전환하면서 헌책을 통영에 있는 한 중학교에 모두 기증했다. 김윤환 대표는 “헌 책방에 팔아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도서 지역 중학교에 책을 기증하고 나니, 나눈다는 것, 참 보람이 크더라.” 고 말하며, 책의 기능이 흔하지 않던 1975년부터 책 기증을 지금까지 쉬 없이 이어가고 있다. 돈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하는 야간학교 근로 청소년에게, 교도소, 군부대에도 책을 보내고 있으며 그 수는 어림잡아 약 44만권에 달한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위로를 받아 왔으며, 자기 세계에서 우뚝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김대표는 “독서는 사실상 만병통치약이다. 최근 확산되는 자살과 청소년 탈선 같은 사회 병폐도 독서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면 반드시 개선시킬 수 있다. 책은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는 지혜의 뗏목이다.” 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 는 인생철

학에 따라 수익과 관계없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독서운동가로 문화 나눔의 폭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다.

### 지혜의 공간 영광도서, 부산시민과 함께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다.

서점은 공공 공간이며 공공 자산이다. 나라와 사회를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롭게 일으켜 세우는 문화인프라이다. 하지만 도서관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 육성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서점의 환경은 정말 어려워졌다. 부산에도 600여개의 서점이 이제는 100여개 남았고 그나마 인건비 지출없이 가족들이 겨우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점을 유지하려면 서점만으로는 안되는 게 현실이다. 영광도서도 자체 건물이라 임대료 부담이 없음에도 서점 수입 만으로는 힘들어 서면 요지의 주차장 수입과 건물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서점의 적자를 보전하며 겨우 버텨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책만 팔아서 돈벌이가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영광도서는 지난 10월달에 준공식을 한 신축 사옥으로 서점과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미래의 서점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가꾸어 가고 있다.

영광도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가장 큰 버팀목은 영광도서를 찾은 부산 시민이다. 꾸준히 사랑해주고 이용해주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독서와 문화를 한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영광도서로 거듭나 100년을 넘는 자랑스런 서점이 되도록 매진할 것이다.



# BOOK NEWS

##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노희영 / 21세기북스 / 19,800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마켓오, 비비고, 계절밥상, 제일제면소, 백설, CGV, 올리브영, 갤러리아 백화점,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빙스, 다시다, 프레시안, 햇반, 해찬들, 뷔티첼, CJ오쇼핑, 산들애”뿐 아니라 천만 영화 <광해> <명량>의 마케팅까지 노희영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30년 경력의 브랜드 컨설턴트인 저자가 론칭한 브랜드는 200여 개, 오픈한 매장은 2500여 개에 달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의 30년 노하우 중 가장 핵심만을 꼽아 12개의 법칙으로 소개한다. 특히 공개된 적 없는 30여 개 브랜드의 성공 과정을 담고 있어 트렌디한 콘셉팅 노하우, 허를 찌르는 마케팅 전략, 경영 기본 원칙, 퍼스널 브랜딩 방법 등 노희영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거듭나게 한 비밀을 알 수 있다. 책 말미에는 저자의 일하는 방식, 일에 대한 철학을 부록으로 구성했다. 노희영의 12가지 브랜딩 법칙과 일에 대한 신념은 진정한 리더와 선배의 가르침이 필요한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컨설턴트, 영업자, 디자이너, 경영인, 창업자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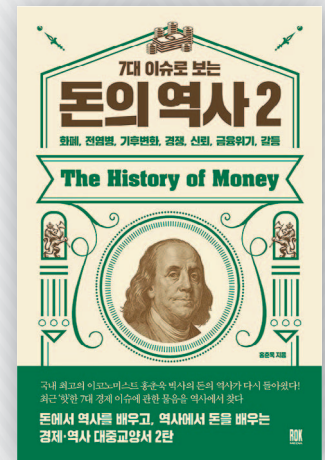


##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2

홍춘욱 / 로크미디어 / 17,800원

이 책은 통화량, 전염병, 기후변화, 기술 혁신, 신뢰, 금융위기 대처, 국가 간 분쟁이라는 7대 이슈 속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우리 앞에 다가온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크나큰 통찰을 전달한다.

화폐 공급의 증감이 가져온 전근대 사회의 경기변동, 코로나 시대에 일어날 경제·사회 변화, 기후변화가 역사에 미친 영향,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 기축통화가 갖는 신뢰라는 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배운 대처법의 유용성, 미중 무역분쟁이 불러온 세계 경제 정세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린뉴딜이라는 트렌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의 싸움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최신 시사, 경제, 이슈에 관심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로 이코노미

조영무 / 쌤앤파커스 / 16,000원

LG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년간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해온 국내 최고의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조영무 박사가 '제로 이코노미'라는 파격적인 키워드를 내놓았다. '제로 이코노미'란 제로 금리, 제로 물가 상승률, 제로 출산율, 제로섬 경제 등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 키워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경제, 정부부채 폭증으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좀비기업 급증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 경제역동성 저하, 취업 기회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가 부른 양극화와 가계 빈곤화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은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 이 책은 삼프로 TV 등을 통해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과 전망을 보여준 조영무 박사가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분야별, 경제주체별 대응 방안을 작성하고 밝힌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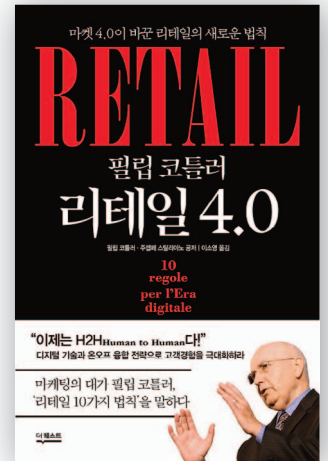
## 필립 코틀러 리테일 4.0

필립 코틀러, 주셉페 스틸리아노 / 더퀘스트 / 17,800원

팬데믹 충격, 경기불황 장기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습관 변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특히 소매 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필립 코틀러는 현 상황을 '리테일 4.0'으로 규정했다. 이에 맞춰 리테일 업(業)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퀀텀 점프의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리테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융합하고 '고객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이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아마존, 디즈니랜드, HSBC, 시세이도, 파타고니아 등의 글로벌 기업 사례도 담았다.

미국과 유럽을 각각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의 안내로 리테일 4.0 시대의 성공 전략을 만나보자.



##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김윤정 / 다산북스 / 16,000원

이 책은 외진 마을의 작은 가게를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유명 맛집으로 성장시키기까지, 고기리막국수 김윤정 대표의 비결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된 2020년, 고기리막국수는 8년 만에 매출 30억을 달성했다. 이는 저자가 첫 가게에서 큰 실패를 겪은 뒤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저자는 70번 이상 방문한 단골손님이 계속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비결이 '진심 경영'에 있다고 말한다. 이 식당이 특별한 것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재방문하는 손님층이 두껍게 쌓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음식 맛이 좋고,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더라도 한 번 온 손님을 단골로 만들려면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이 책은 손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정교한 배려심이야말로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명쾌하고도 힘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 돌파하는 기업들

김성호 / 초록비책공방 / 16,000원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혼돈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코로나19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도 언제나 큰 위험과 변화가 있었고, 턱어라운드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나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되는 턱어라운드 사례들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난 기업들의 이야기이다. 패스트 패션 분야의 세계 1위 기업 자라를 비롯하여 스트리밍 무비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 강자 넷플릭스, 식음료 업계의 대표이자 세계적인 커피 기업 스타벅스, 모바일폰 최강자에서 추락한 후 다시 두 번째 도전을 보여주는 노키아까지. 각기 다른 4개 기업의 턱어라운드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기업과 조직, 개개인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다.





# 2021년 1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2021년, 부산제조업 경기회복 기대감 바탕으로 반등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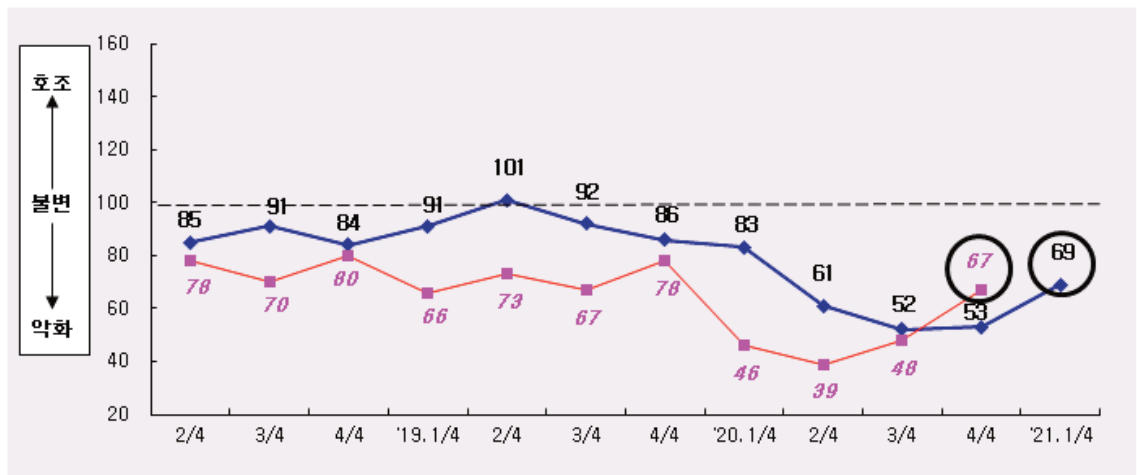
부산상의 조사연구본부  
조사역 서영훈

부산상공회의소는 '2021년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며 유효응답은 254개체다.

조사에 따르면 신년 부산 제조업의 체감경기를 가늠하는 2021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69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 수준을 보여 왔던 지역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반등의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금년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지수는 1분기 83을 기록한 이후 4분기 53까지 떨어져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 부진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년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적지수가 2분기 39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3분기 48, 4분기 67로 상승세를 보인 것도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추이 |



BSI

매출,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경영 부문에서도 지수가 4분기에 비해 상승했다. 매출전망지수는 4분기 51을 기록했지만 2021년 1분기는 63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도 52에서 64로 올랐다. 설비투자도 79에서 100을 기록해, 제조 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업종별로도 기계장비업을 제외한 모든 조사업종에서 전망지수가 4분기 수준을 상회했고, 전자전자업종은 지수가 기준치 100을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상의는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절대치는 여전히 기준치(100)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 이번 조사가 바닥 탈출의 의미는 있지만 지역제조업이 올해 업황 부진을 뚫고 내년에 V자 반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부문별 BSI 변화 |

구분	실 적		전 망	
	'20.3/4분기	'20.4/4분기	'20.4/4분기	'21.1/4분기
체 감 경 기	48	→ 67	53	→ 69
매 출	45	→ 70	51	→ 63
영 업 이 익	43	→ 70	52	→ 64
설 비 투 자	78	→ 103	79	→ 100
자금조달여건	70	→ 80	67	→ 77

이를 뒷받침하듯 조사업체의 81%가 내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응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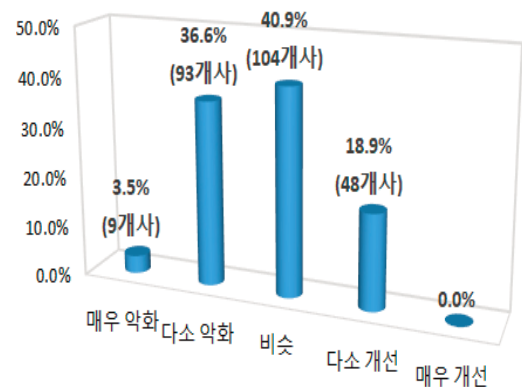
또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조사업체의 81.5%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5%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한 업체들 중에서도 68.1%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 보수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사기업의 절반이 넘는 52.8%의 기업이 내년도 채용을 올해 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3.9%에 불과해 2021년 지역 신규채용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주요 업종별 BSI 변화 |

구분	실 적		전 망	
	'20.3/4분기	'20.4/4분기	'20.4/4분기	'21.1/4분기
음 식 료 품	53	→ 59	40	→ 59
섬 유 제 품	40	→ 60	33	→ 60
의복 · 모피	27	→ 47	40	→ 47
신 발 제 품	40	→ 27	40	→ 53
화학 · 고무	70	→ 68	83	→ 92
제 1 차금속	36	→ 68	56	→ 80
조 립 금 속	55	→ 60	55	→ 70
전 기 전 자	35	→ 60	70	→ 100
기 계 장 비	36	→ 81	52	→ 50
자동차부품	40	→ 88	40	→ 78
조선·기자재	60	→ 81	53	→ 67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종식 이후 글로벌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또한 “내년에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공정경제 3법 시행 등 기업의 경영 부담도 훨씬 더 커지는 만큼,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규제 개선 및 세제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올해 대비 내년 국내 경제전망 |



# [ 대한상의 브리프 ]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

##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 어디까지 왔나

“코로나19가 유지되는 동안 비대면 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완벽하게 통제되거나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영역에서는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비대면 경제란 정보통신기술(CT)을 이용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제품·서비스 등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비대면 경제의 확장세도 함께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활동을 경험한 인구는 74.4%에 달한다. 3명 중 2명은 비대면 경제를 이미 경험했거나 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대면 경제가 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 비대면 배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비대면 금융 서비스, 비대면 교육 서비스 등이 그 예다.

### ● 비대면 의료






비대면 서비스가 가장 많이 등장한 산업으로는 ‘의료’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병원 내 대면 업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도입됐다. 가령 건강관리 분야 스타트업 레몬헬스케어는 병원 진료 예약 및 안내, 진료비 결제 및 실손보험금 청구 등을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 편집자주

‘코로나19 1년’ 우리 사회와 경제는 ‘대면에서 비대면의 시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산업계를 돌아보고 그 이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서비스 모델 유형과 사례]

 <b>비대면 의료</b>	- 병원 대면 업무(병원 예약, 진료비 결제) 줄이는 앱 개발 스타트업 증가 -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장... 전화화상상담 100만 건 넘어
 <b>비대면 쇼핑</b>	- 유통업 매출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까지 늘어 - ‘비대면 배송’도 같이 화두... ‘로켓 배송’ 쿠팡 하루 출고량 300만 건
 <b>비대면 금융</b>	- 점포 구조조정을 서두르며 디지털 채널 기반을 닦는 데 사활 - “코로나로 디지털(비대면) 거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될 것”
 <b>비대면 콘텐츠</b>	- 극장 관객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 -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경우 매달 사용자가 증가해 10월 최대 수준
 <b>비대면 일상</b>	- 대세는 ‘코인빨래방’이라면 이제는 ‘배달빨래방’으로 - 모바일 앱으로 하루 만에 세탁물 수거, 세탁, 배송까지 완료하는 서비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병동 출입 관리에 병원 출입증이 아닌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출입 관리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이동경로 추적도 가능하다.

나아가, 아예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비대면 의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등장하는가 하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약품을 배송해주는 약 배달 서비스(배달약국)도 등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화화상 상담은 103만 957건, 진료비 청구액은 약 130억 원에 이른다.

● **비대면 쇼핑 ‘바람’**

코로나는 쇼핑 행태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오프라인 매장과 거리를 두고, 대거 온라인 쇼핑 공간으로 몰려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소매유통 매출 총액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평균 41.2%였다.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인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평균 45.9%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인 2월에 온라인쇼핑의 비중은 49%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던 고가의 명품이나 가구까지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배송’도 화두다. 온라인몰에서 새벽 배송으로 식료품을 사는 것은 물론 간식이 필요할 때도 집 앞 편의점으로 가지 않고 스마트폰의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여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주문한 제품을 내일 가져다주는 ‘로켓 배송’을 앞세운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하루 출고량이 200만건에서 300만건으로 1.5배 늘었다.

● **비대면이 불러온 디지털 혁신**

대면 위주의 금융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금융은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

과 효율성을 증명하며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인 은행은 점포 구조조정을 서두르며 디지털 채널 기반을 닦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면 업무가 기본이던 시대에서 비대면 업무가 새로운 활로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은행권은 올해 코로나로 디지털(비대면) 거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될 것으로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영업점 방문이 줄고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 건수가 전년 대비 10% 가량 늘었다”며 “언택트 강화로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	내용
하나은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대출 취급의 전 과정을 모바일 비대면 프로세스로 구현하여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
IBK은행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총 13종의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는 ‘패스트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행
DGB은행	은행 방문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방문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
KB증권	신분증 사진과 고객 셀프 촬영 사진이 일치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한 ‘얼굴 인증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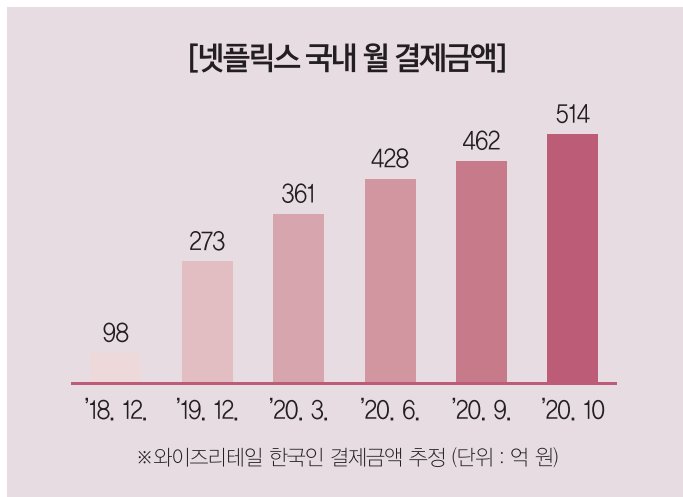
● **‘집콕’ 비대면 문화**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람객이 밀집할 수 밖에 없는 문화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영화산업에 타격이 컸다. 올해 11월까지 영화관 관람객수는 5,84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수(2억 421만명) 대비 28% 수준이다. 지난해 2억 20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극장 관객 수가 코로나 19여파로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공연 분야의 경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 전체 공연 분야 예매는 올 1월 95만 6693건에서 4월 11만 6851건으로, 매출액은 약 390억 2200만 원에서 46억 9395억 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는 늘었다.

대표적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경우 매달 사용자가 증가해 10월 기준 넷플릭스 결제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이즈앱은 10월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 514억 원, 결제자는 362만 명으로 추정했다. 관객이 찾지 않는 극장 대신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줄을 이었다. 대면 소비가 급감한 것에 비대면 소비가 완충 역할을 한 셈이다.



● ‘실생활까지 손 뻗친 ‘언택트’

실생활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손을 뻗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코인빨래방’이 유행했다. 소비자가 직접 빨래방에 가서 코인을 넣고 빨래를 해서 오는 서비스 형태다. 코로나 전 대세가 ‘코인 빨래방’이라면 이제는 ‘배달빨래방’이다.

의식주컴퍼니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를 런칭했다. 이는 모바일 앱으로 하루 만에 세탁물 수거, 세탁, 배송까지 완료하는 서비스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 특히 원료로 만든 세제를 사용하고 개별 고온 스팀 건조 살균 등 코로나19 사태 속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월평균 신규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앞으로 실생활에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시대, 필수 경영전략

코로나19의 종식은 비대면 경제의 쇠퇴를 의미할까. 대다수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익숙한 오프라인, 면대면 서비스를 찾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보다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경제 시대,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대비해야 할까?

먼저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결합한 ‘딥택트(Deep tact)’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채널의 장점을 융합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지난 6월 열린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에서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딥택트 전략과 함께 미국의 악기 제조사인 ‘펜더’를 소개했다.

펜더는 기타를 만들어 팔던 기존 사업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자 사업모델을 언택트 비즈니스인 기타 연주 온라인학습 플랫폼 사업자로 재해석하면서 부활에 성공했다. 3년 만에 유료 구독자를 10만 명 이상 확보했고 기존 사업인 악기 판매도 덩달아 늘었다.

온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온택트(On tact)’ 전략도 중요하다. 온택트는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해 각종 활동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했던 시음·시식회 및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 강연회, 콘서트 등이 코로나19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온택트 콘텐츠를 내놓는 것이 중요해졌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포택트(Fortact)’다. 포택트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1대 1로 만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콘텐츠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24시간 온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제 ‘비대면 경제’ 패러다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비대면 경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9월 14일 기준

(단위 : %)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2018	2019 <sup>(E)</sup>	IMF		OECD	
			2020 <sup>(P)</sup>	2021 <sup>(P)</sup>	2020 <sup>(P)</sup>	2021 <sup>(P)</sup>
한국	2.7	2.0	-1.9	2.9	-1.1	2.8
세계	3.6	2.9	-4.4	5.2	-4.2	4.2
미국	2.9	2.3	-4.3	3.1	-3.7	3.2
중국	6.6	6.1	0.9	8.2	1.8	8.0
일본	0.8	0.7	-5.3	2.3	-5.3	2.3
EU	1.9	1.2	-8.3	5.2	-7.5	3.6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 2. 환율·유가<sup>1)</sup>

	2017	2018	2019	'20.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99	1,187	1,179	1,145	1,117
원/엔(100엔)	1,009	996	996	1,122	1,120	1,116	1,088	1,069
원/위안	167.5	166.4	166.4	170.9	171.1	173.0	170.5	169.1
원/유로	1,276	1,299	1,299	1,373	1,403	1,391	1,348	1,321
유가(Dubai)	53.2	69.7	63.5	43.3	44.0	41.5	40.7	43.4

(단위 : %(전년동기대비))

### 3. 산업지표

	2017	2018	2019	'20.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2.6	1.6	0.6	-1.5	-3.4	3.4	-2.7	-
소매판매	1.9	4.3	2.4	0.5	0.3	4.3	-0.2	-
설비투자	14.4	-3.6	-6.2	8.1	-1.6	16.8	-1.0	-
수출	15.8	5.4	-10.4	-7.1	-10.3	7.3	-3.8	4.0
수입	17.8	11.9	-6.0	-11.6	-15.8	1.6	-5.6	-2.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 경영상담

## Management Consultation



안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순원

Tel : 051-920-5000 E-mail : schoi@akcpa.co.kr

###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등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 질의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 "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안-2501, 2020.10.26 )

# 노무상담

## Labor Consultation



흥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주재현

Tel : 051-464-0306 E-mail : jooxoo@hanmail.net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손해예상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관계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에 정해 둘 수 없으며,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등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체결하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면서 의무재직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수에 소요된 교육비용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하였습니다. 즉, 연수비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금지된 ‘위약금의 예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수비용이 아닌 임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위약금의 예정’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외연수기간 중 단순 연수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와 관련된 금품은 연수비용이 아닌 임금에 해당되므로 ‘위약금의 예정’ 금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약예정의 금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와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12월)

# 특허상담

## Patent Consultation



옥특허법인 대표변리사 김영옥

Tel : 051-862-6622 E-mail : ok@okpat.co.kr

본인이 등록받은 특허권의 권리청구범위를 작성할 시 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중요한 요소를 누락하여 권리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허권 정정청구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특허권자는 특허권리범위를 결정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여 새롭게 권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라 함은 기등록 받은 특허권의 청구범위를 원권리의 요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는 심판절차를 말하는데, 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권자가 언제든지 제기할 수가 있고, 특허의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판의 진행과 함께 간편한 방법으로 정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심판청구는 기등록 받은 특허의 권리범위가 변동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내용적으로는 일정한 제한을 가지게 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①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 ②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으며,
- ③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이 그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정심판청구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당초 특허받은 특허기술이 정정청구로 인해 권리자에게는 권리자체의 명확성과 충실성을 기하게 하는 한편 일반 공중에는 당해 특허권의 정정이 출원 당시의 권리보다 확장되거나 요지가 변경되어 권리남용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정정청구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특허권자에게는 자기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권리행사시 상대방의 권리침해를 강력히 응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허등록 후 특허청구범위 기재 중 상대방의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불명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정내용에 있어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누락된 일부기술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여 권리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세상담

## Tariff Consultation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김근수  
Tel : 051-990-7126 E-mail : fta1472@naver.com

### 수출품 : 홍삼캔디(HS 1704.90-2090)

- 동사는 매출액 4억(2019년 기준) 수준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금년 8월경 홍삼캔디를 처음으로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수출 계약을 맺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요청을 받고 10월 5일 현장방문컨설팅을 실시함.
- 홍삼캔디(HS 1704.90)에 관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CTH or RVC 40% : 선택기준)임을 안내하고,
- 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FTA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시 부가가치기준(RVC40%)을 적용하여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된 원재료에 관한 거래명세서 등 구매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를 적용하여 FTA 원산지 증빙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 원재료에 관한 HS 코드를 확인한 결과, 원재료 중 카라멜의 HS 코드가 수출품인 홍삼캔디와 동일(1704)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홍삼캔디의 원재료중 카라멜의 성분 구성 비율이 아주 미미하여 원재료 구매 카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결과, 수출품 FOB 금액 대비 10% 미만으로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므로, 최소허용기준으로 원산지소명서, BOM을 작성함으로써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를 충족하여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무난히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게 되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에 감사 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 생산 기준, 역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이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 공정 기준, 선택 기준, 조합 기준이 있으나 이들이 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대부분 실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바로 분야별 특례기준입니다. 이는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부속품·예비부품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가 있으며,

- 동 사례에서 적용한 최소허용 기준이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FOB)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FOB 가격기준 10% 이하)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 기준중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는 경우임.

제5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품중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총일 상품 및 부속품 제 50 부부터 제 63 부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품에 대하여는, 동적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전체 가치의 10% 이하를 초과하여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총일 상품 및 부속품 제 50 부부터 제 63 부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하여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전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총합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 이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적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전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산인 국가 가치의 10% 이하를 초과하여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가로 및 나로에 명된 상품중 원산지 상품으로서 제적은 경우를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 1 항에 언급된 세번변경 기준의 기준은 그 상품의 모든 적용가능한 역 내가적요위수 기준을 위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Article 39 : De Minimis	
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a)	for a good, other than that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and
(b)	for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good, or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and the good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and (b)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out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
2.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VC requirement for the good.



# 부산상의 인포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 | 특허침해 배상책임 강화에 대비하세요 |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달 10일 부터 특허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 능력이 1000개일 때,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9000개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9000개에 대해서도 특허 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권리자가 침해자와 계약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를 계산해 손해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때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허청은 조만간 특허권자가 특허소송 과정에서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추가로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한국 기업들이 서구 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개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데가 배상 금액이 높아진 만큼 특허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각 기업의 전사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허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권리자가 소송제기 등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2-5899)에서 가능하다.

## |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도전하세요 |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하여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한 공장을 말한다. 크게 기초 수준(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중간 수준(수집정보 분석 제어), 중간 수준 2(전사적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운영), 고도화(지능형 시스템을 통한 자율운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은 대부분 기초 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한 자율 공장으로 운영되는 고도화 수준은 찾기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기존 공장의 고도화를 위해 내년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별 지원 금액은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및 참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나 신규공장은 최대 1억원까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해 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나은행에 스마트공장 사업 자금을 집중 예치해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이 최대 40억 원까지 일반 기업보다 1.8%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 또한 신설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혹은 컨택센터 (1644-1736)에서 가능하다.

## | 2020년, 위기에도 빛났던 혁신기업을 소개합니다 |

제27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이 1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영광의 대통령상은 대한항공이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전세계 항공업계가 파산 및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용으로 개조하여 화물 공급을 확대하는 역발상 혁신 전략을 통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고용을 유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코맥스는 52년간 고수해온 '도어락 제조' 사업의 틀을 바꾸어 인공지능, 음성인식,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 했으며, 제약업체 한국팜 비오는 과감한 R&D투자와 수평적 소통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정제형 대장내시경 신약을 개발하였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 기업들의 발표영상은 유튜브 '대한상의 인사이드( <https://www.youtube.com/channel/UCtSmQ4ln18jB-rtyGQD6yXw> )' 에서 12월 18일 부터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회원CEO팀(02-6050-3425)으로 하면 된다.

### | 규제고민, 규제개선 추진단에 맡기세요 |

대한상의는 각종 규제에 인한 회원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바로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추진단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로는 탄소저감 기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보증 지원 제도 시행, 음식점 특화거리 지원제도 마련, 소량생산 자동차의 튜닝 규제 완화 등이 있다.

특히 접수된 개선 건의는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반드시 2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하고 있다. 또한 수용불가 판정을 받은 규제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도 앞장 서고 있다.

상의는 앞으로도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회원 기업이 직면한 규제 관련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의 및 상담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 김민석 차장(02-6050-3368)에게 연락하면 된다.

### | 중소기업인 로고, 무료 제작하세요 |

사과 모양의 애플 로고, 승리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나이키 로고 등에서 알 수 있듯 특정 기업의 로고는 해당 회사와 제품의 이미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직원들에게 애사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가능케 하며, 해당 기업의 궁극적 목표를 알려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업 로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로고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상공회의소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인을 위한 무료 로고 제작에 나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200여개 기업이 혜택을 입은 데다 우수한 품질로도 유명하다.

서울상의의 로고 지원은 전문 디자인업체가 해당 기업과의 인터뷰, 시안 개발, 피드백 등 기업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서울상의 산하 25개 구(區) 상공회나 무국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서울상의 상공회운영 사업단(02-6050-3467)에서 가능하다.

### | 상의 PL 단체보험 가입하세요 |

'제조물 책임(PL·Product Liability) 보험'은 특정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 상품을 말한다. 제품 하자가 있을 때 단순히 수리와 환불을 해주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각종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한 차원 높은 배상 제도다.

과거 TV브라운관의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과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사가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진다.

상공회의소는 PL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피해를 막기 위해 상공회의소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단체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안성, 천안, 제주 소재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이 개별 보험사에 직접 가입했을 때보다 비용이 최대 40% 저렴하다.

특히 보험 가입 후에는 전국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맡아 주므로 가입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가입 문의는 상공회의소 PL센터(pl.korcham.net, 02-6050-3875~8)에서 가능하다.

###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피해 주의해야! |

최근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입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등을 판단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의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5배, 지난해에는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위반시 수입국으로부터 벌금부과나 형사상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일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사항에 대해 수출기업은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콜센터(02-6050-3303)'에 상담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중국, 터키, EU, 캐나다 등 주요 9개국의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과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1



### ▶ 내수경기를 신속하게 재생하고 진작하겠습니다.

- '21년 소비 증가분 별도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21 上)
- 고효율가전 구매금액 환급(500억, 3~12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 ▶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확산하겠습니다.

- 110조원 공공(65조원)-민자(17조원)-기업(28조원) 투자 프로젝트
- '21년 한시 설비투자 가속상각, 유턴기업 지원강화

### ▶ 수출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인 해외출장복귀시 격리면제절차 개선, 종합지원센터처 운영 연장(~'21년말)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 ▶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중대 세액공제 제도 한식 개편('21년)
-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및 내실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

### ▶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3조원+a)
-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 기업 경영안정과 위기돌파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요-공급 공동사업재편 대상기준 명확화(기활법령 개정), 3종 인센티브
-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재편 개선

### ▶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 지역균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 연내 성과 가시화
- 지역소멸 대응,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3

### ▶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5G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디지털·AI기술, 인프라 보급 등 지원

### ▶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구축
-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4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5



- ▶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구축,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한 대·중·소 시너지 창출 등 본격 성장동력화
- ▶ **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문화강국 도약” 본격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

-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전략 본격 추진
- ▶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뉴딜 인재 30만명 양성(21년 3.6만원) 및 직업훈련 연계
  - 성과중심 직업 훈련 시장(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평가자 다양화 등)
- ▶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및 조달·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5~49인 취약사업장 점검, 탄력근로제 확대 등)
- ▶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3기 인구정책 TF 본격 가동 및 관련 대책 순차 발표
  -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

- ▶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 ▶ **코로나시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 등 마련
  -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생거형 적합업종 제도 보완
- ▶ **국민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 만족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출처 : 기획재정부 |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ef.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무형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2020년(2학기), 2021년(1학기)

#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IPP 참여기업 모집

경성대학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핵심사업인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 청년고용률 향상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참여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업·직종 무관)  
(실습생 요청 1명 이상)
- 전 단과대학(전학과) 3,4학년 재학생 (휴학생 및 보건의계열 제외)

## 실습분야

- 경영, 회계, 총무, 연구, 설계, 품질, 생산, 물류, 서비스, 음식조리 등 기업내 전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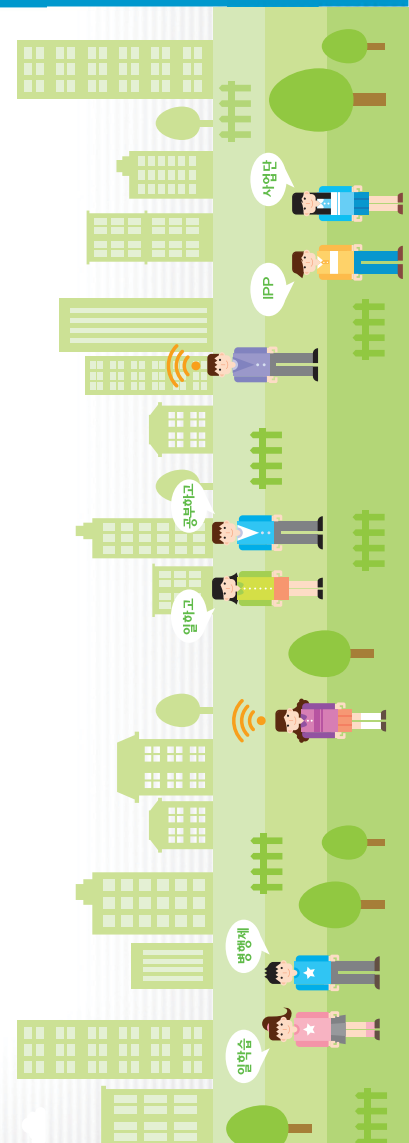
## 실습기간

- 2020.09.01 ~ 12.31 / 2021.03.01 ~ 06.30

## 기대효과

- 기업홍보효과
- 실습생 1명당 정부지원금 40만원 지원 등
  - 경성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적은 비용으로 현장에서 활용
  - 월 140만원 이상 부담(2020년 최저 임금 180만원 이상 기준)
- 실습종료 후 직원 채용시
  -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절감
  -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

“IPP장기현장실습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기업-대학 모두가 Win-Win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경성대학교 IPP사업단**

t 051.663.5612~8 f 051.663.5619  
e pethsas@ks.ac.kr  
h <http://ipp.ks.ac.kr>



IPP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형 일학습병행  
대학형 일학습병행으로써  
대학과 기업간의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취업활성화를 도모

일학습병행  
한국형 도제제도



2021년

기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 양성하는

# IPP형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고용과 연계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육성 및 채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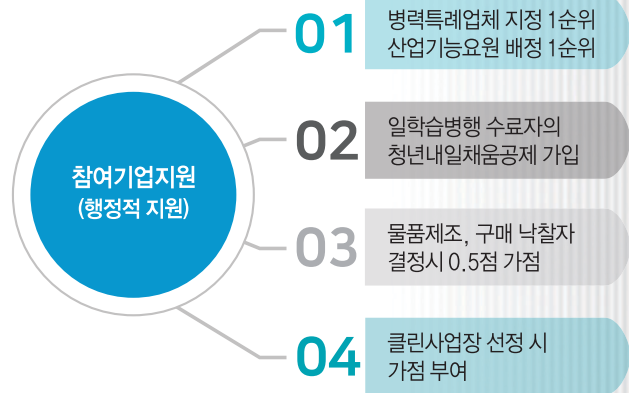


❖ 일학습병행 목적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참여기업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기술력 우수기업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 일학습병행 특징 스펙초월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 01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기업주도
- 02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 03 생산현장의 시설·장비 활용
- 04 평가를 통한 NCS기반 자격 부여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방식 OFF-JT와 OJT의 상호연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성대학교





#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매출채권보험

## 사장님께 힘이 되는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고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나요?

#### 보험금 지급 사유

- 당좌부도
- 폐업 · 해산등기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매출채권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 보험금

[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 × 보상률(최대 80%)] 중 적은 금액

※보상대상 매출채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매출채권에 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별 약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사랑 보험」

보험계약자가 거래하고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보험가입의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별로 보험금액을 부여
-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게 됨

### 「한사랑 보험」

거래기업 중 원하는 특정기업 1곳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개별거래처 단위로 매출채권의 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운용
- 보험금액 이내에서 실제 손해금액의 80% 보상
- 거래기업의 신용등급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이 적용됨

### 「B2B PLUS+ 보험」

외상거래 판매위험 보장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가능한 보험

-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금액의 80%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상환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IK-CEPA) "Building Strategic Partnership for the Future"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IK-C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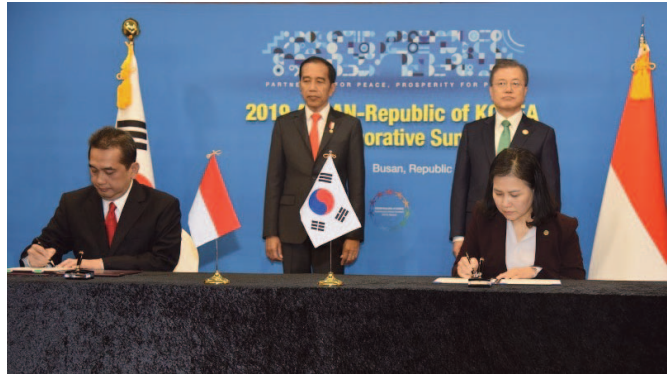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서비스,투자,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교류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 IK-CEPA 협상 범위: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관세 협력, 무역 촉진 및 무역 분쟁 해결 포함), 서비스 무역, 투자, 협력 및 제도적 역량 강화

### 한국측 혜택:

한국은 IK-CEPA를 통해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시장 접근의 개방은 산업 부문의 주요 투자기업 (현대, 포스코, 롯데 케미칼, 삼성) 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현지 진출한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원자재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양국간 무역 증진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장벽이 낮춰지게 된다. 또한 한국은 건설, 유통 및 온라인 게임, 보건 등 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향상이 된다.



Korea will liberalize



From its total  
12.232 tariff lines



Steel and Chemical  
Products

**POTENTIAL  
PRODUCTS**

Indonesia will liberalize



From its total  
10.813 tariff lines



T-Shirts, Plywood,  
Tropical Fruits, Tuna



Online  
Game



Distribution  
Services



Construction  
Services

### Future Economic Cooperation

#### 미래 경제 협력

산업, 농산물, 임업, 수산물,  
무역 규칙 및 절차,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Training on  
Human Resources



Exchange Data  
and Information;



Design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s



Sharing of Best  
Practices; Joint  
Research

### 주요제품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품과 잠재적인 수입 제품에는 윤활유, 화학 제품 (스테아르산 및 라우릴 알코올), 티셔츠, 합판, 맥주, 바나나, 구아바, 망고 스티, 파파야, 살 라크, 참치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제품은 철강, 합금, 화학 물질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및 폴리카보네이트 공중합체), 폴리에스터 원사 등이 있다.

### IK-CEPA 타결기대효과

IK-CEPA는 무역 다변화 및 양국간 투자를 증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무역과 투자의 증가는 비즈니스, 인력 이동, 소비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어 양국간 상생의 틀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 올겨울, 나눔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 나눔명문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기업 모임

가입방법: 1억원 이상 일시 또는 3년 이내 약정기부

가입현황: (주)부산은행, DSR(주), 아이에스동서(주)

## 아너 소사이어티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고액기부자 모임

가입방법: 1억원 이상 일시 또는 5년간 약정기부

주요활동  
 • 만남과 교류: 부산아너 총회, 정기모임  
 • 봉사: 월 1회 정기봉사, 명절봉사

## 착한일터



직장인의 따뜻한 나눔  
매달 급여에서 약정금액 기부

## 기업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부

# 서울역사 내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나보세요



**이용대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

**위 치** 서울역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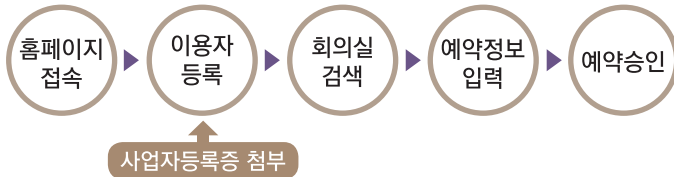
**운영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 휴관

**이용방법**

- 사전예약(홈페이지, 모바일) **우선**
- 홈페이지 [www.dongnambiz.kr](http://www.dongnambiz.kr)
- 모바일 [m.dongnambiz.kr](http://m.dongnambiz.kr)
- 현장등록

**이 용 료** 무료

**예약절차**



**라운지**

회의 및 간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커피, 차 등 음료가 있는 휴게 공간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비즈니스 미팅룸



**사무기기**

복합기(컬러복사, 스캔, 팩스)  
노트북(윈글·MS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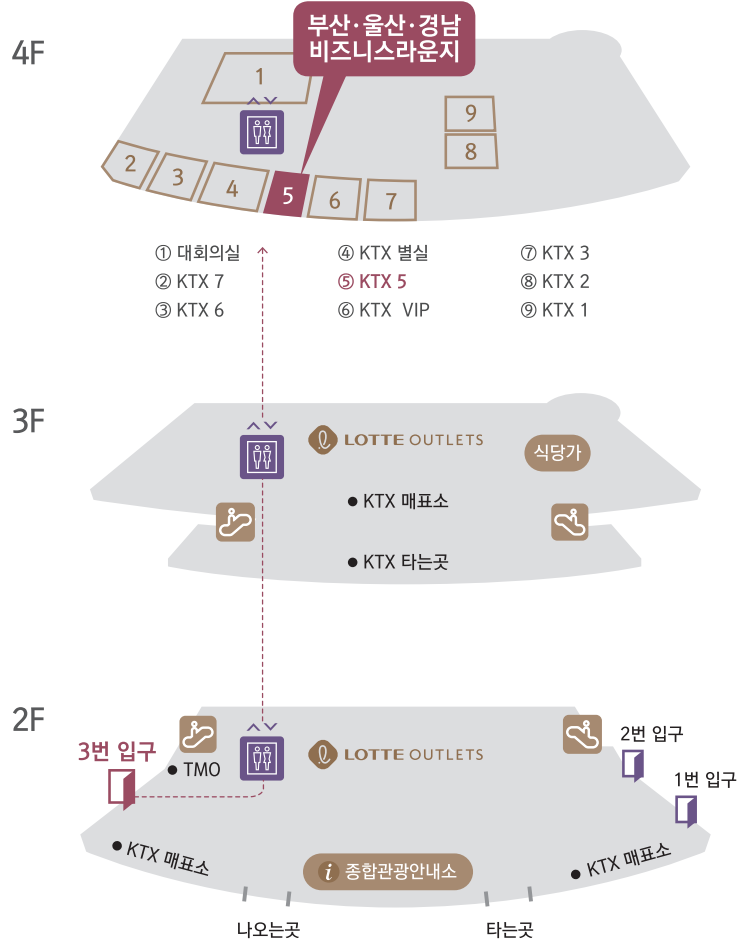


**신문 및 간행물**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기업지원사업안내 책자 및 브로슈어

## 오시는 길

서울역 2층 또는 3층에서 3번 입구쪽 엘리베이터 이용



문의 T. 02-313-1888 F. 02-313-1890  
[www.dongnambiz.kr](http://www.dongnambiz.kr) / [m.dongnambiz.kr](http://m.dongnambiz.kr)



#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미래 수요를 반영한  
'확장성 있는 공항'



소음피해 없는  
'24시간 운영 공항'



장애물 없는  
'안전한 공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공항'

